

# 이별

## Abschied

### 1. 어원 및 개념 정의

이별 Abschied은 15세기 중반 동사 abscheiden에서 형성된 명사로 원래 Abscheid로 쓰였으나 18세기부터 Abschied로 바뀌었다. 여기엔 “떠남”과 “죽음”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별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할 일로 인해 서로 헤어짐을 의미한다. 이별의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이별은 고통스럽고 슬픈 감정을 갖게 만들지만 때로 개인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후자의 경우 이별보다는 “떠남”의 의미가 강하다.

### 2. 모티프 유형

1) 죽음을 통한 이별 - 영원한 헤어짐을 의미.

아르투어 슈니츨러의 『어떤 이별』은 유부녀와 한 남자간의 사랑이 유부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이다. 사랑과 도덕기준 사이에서 고뇌하는 남자의 정신적 세계가 가감없이 묘사되어 공감을 준다.

2) 전쟁, 분단, 납치 등 사회, 정치적 이유에 의한 강제적 이별.

3) 결혼과 이혼, 사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사적 이별.

4) 고향이나 살던 곳에 대한 환멸 등의 이유로 떠나는 자발적 이별.

5) 사고나 유괴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이별.

### 3. 서사구조

	내용
원인	죽음 (가족, 연인, 친구, 동료 ...)
	전쟁, 분단
	자연재해
	이혼, 파혼

	배신
	환멸
	사고 (배의 난파 등)
과정	정신적 고통과 슬픔, 헤어진 대상에 대한 추억 고독한 삶
	기다림, 희망 상실
	삶에 대한 의지 상실, 복수를 준비함
	헤어진 대상을 잊음, 새로운 힘의 충전
결과	자살, 고뇌
	재회
	새로운 삶, 새로운 만남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 4.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어떤 이별 Ein Abschied』\*

작가	아르투어 슈니츨러 Arthur Schnitzler (1862-1931)
장르	단편소설
생성년도	1896년
등장인물	알베르트: 유부녀 안나를 사랑하는 남자 안나: 유부녀임에도 알베르트와 사랑을 나누는 여자

##### 4.1. 내용 요약

그는 매일 그녀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그는 블라인드를 내린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 그는 그녀가 오면 언제나 사랑의 환희를 맛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저녁 7시까지 그가 집에서 기다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기다림에도 그녀는 오지 않는다. 다음 날도 7시가 될 때까지 그녀는 오지 않는다.

소설이 한참 진행된 이후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여자의 이름은 안나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알베르트는 오지 않는 안나로 인해 초조해진다. 그녀의 집을 함부로 찾아갈 수도 없다. 그녀에겐 남편이 있기 때문이다. 알베르트는 여러 생각 중 그녀가 병이 났을 거라 추측한다. 그는 심부름꾼을 사 그녀의 상황을 알아보게 한다. 그녀는 정말로 병이

\* 김재혁(역): 어떤 이별, 실린곳: 김재혁 (편역): 민들레꽃의 살해, 현대문학, 2005, 7-44쪽.

났고 뇌수막염으로 위독한 상태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찾아 온 것이 닷새 전이다. 그는 혼란스럽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생각한다. 그녀를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그는 상상한다. 상상 속에서 그가 그녀를 찾아가자 그녀의 남편이 그를 맞는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로 안내한다. 그녀는 미소 짓고 그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둔다.

이제 알베르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는 그녀의 집을 직접 찾아간다. 가정부로 부터 그녀가 30분전에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 행복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상한다. 그는 카페에서 아침을 먹은 후 다시 그녀의 집으로 들어간다. 집에는 그녀의 친지들이 와 있지만 아무도 알베르트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조문객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안나가 누워있는 침실로 들어간다. 누워있는 안나를 보자 그의 가슴에는 고통이 밀려오고 울고 싶었지만 그녀의 침대 발치에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이불에 파묻고 있음을 깨닫는다. 알베르트는 잠시 죽은 안나의 얼굴을 주시한다. 눈물은 사라지고 침대 발치의 남자와 함께 흐느끼는 자신이 너무도 우스꽝스러울 것이란 생각이 든다. 발길을 돌리려 할 때 그녀의 미소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은 날 부정하는 것이라고. 남편에게 내가 당신의 여자였고 내 손에 입 맞추는 것은 당신의 권리라 말하라고.

알베르트는 외면하고 안나의 집을 나온다. 그는 서둘러 그녀의 집을 떠나면서, 수치심을 느꼈다. 자신은 슬퍼할 자격이 없고 자기가 그녀를 부인했기에 그녀가 자신을 쫓아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 4.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죽음을 통한 이별

- 서사구조: 연인관계인 유부녀 안나와 알베르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알베르트의 방에서 만나 사랑을 나눈다. 안나가 갑자기 사망해 이들은 이별한다. 남편이 있는 안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껏 작별인사를 하지 못하는 알베르트는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원인	죽음(애인)
과정	정신적 고통
결과	이별 고뇌

## 5. 작품 목록

슈니츨러 Arthur Schnitzler: 『어떤 이별 Ein Abschied』 (1896)

볼프 Christa Wolf: 『나누어진 하늘 Der geteilte Himmel』 (1963)

하이너 뮐러 Heiner Müller: 『사랑이야기 Liebesgeschichte』 (1953)

## 6. 연계 모티프

갈등, 분단, 사랑, 전쟁, 죽음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사랑 + 갈등 + 죽음 + 이별 + 갈등
스토리	사랑할 수 없는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진다.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으로 인해 이들은 갈등한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치명적인 병으로 죽는다. 죽음은 두 사람을 이별하게 만든다. 이별 후에도 남은 사람은 자신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갈등한다.